

□ 發刊辭 □

九輯 發刊에 붙여

工業化를 주축으로 하는 現代産業社會에서 科學技術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公業 발전을 先導할 뿐만 아니라 經濟成長의 元動力이 되기 때문이다.

일찌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정책기구를 정비하고 현대적 전문연구소 설립, 科學技術人力 養成체제 확립 등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다른 開發途上國에 비해 모범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公業과 相關 産業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60年代 公業화 初期의 勞動集約的 輕工業 중심의 수출산업에서 이제는 技術集約的 產化學工業製品들이 수출의 大宗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周知하다시피 高技術·高品質·高附加價値의 산업이므로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우리나라 산업계가 당면한 急先務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觀點에서 國內唯一의 機械·金屬·造船分野의 전문연구소인 當所는 어느때보다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當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연구개발의 課題는 물론, 국내 公業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지도, 기술감리, 각종 機器에 대한 시험과 檢較正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當所의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 公業기술 先進化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었으며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韓國機械研究所 所報」는 이같은 當所의 의지와 노력의 일부분을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 収録된 글들은 전문적이고 高次的인 이론보다는 産業現場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技術報告와 解説을 많이 실었다. 産業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當所는 앞으로도 學界 및 産業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불철주야 계속할 것이다. 當所의 활동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江湖諸賢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982. 10.

韓國機械研究所

所長
工學博士

박
능
석